

2024. 3. 26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문화본부 박물관과

박물관과장	배 희 정	2133-4181
박물관정책팀장	노 은 영	2133-4183
관련 누리집	www.seoul.go.kr	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7쪽

서울 전역, ‘지붕 없는 미술관’으로 변신한다

<조각도시서울> 계획 발표

- 시민-작가-공간의 유기적 연결 통해 시 전역을 ‘열린 조각전시장’으로
- <제1회 서울조각상> 공모 추진...10개의 입선작품 9월 송현공원에서 전시
- 오는 9월, 키아프-프리즈 아트페어 연계한 <서울조각페스티벌> 및 <서울아트워크> 동시 개최
- 권역별 거점 공원을 중심으로 조각랜드마크 조성하는 중·장기 전략 추진

- 서울시가 올해부터 세계적인 ‘조각도시’로 거듭나기 위한 <조각도시서울 (Sculpture in Seoul)>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실행 프로젝트와 중·장기 전략을 밝혔다.
- <조각도시서울> 계획의 핵심은 시민-작가-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 전역이 거대한 ‘지붕 없는 전시장’으로 변신하는 것이다. 시민들은 수준 높은 조각 작품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게 되고, 작가들은 미술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공간에서 실험적 전시를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된다. 더 나아가 도시 곳곳에 조성될 조각미술 랜드마크를 통해 공간과 작품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있는 도시 공간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.

- 런던(영국), 시카고(미국), 뮌스터(독일) 등 해외 주요 문화예술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야외조각 전시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. 시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를 높여 문화 민주주의를 이루고, 더 나아가 국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은 사례들이다.
- 서울시는 <조각도시서울>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, 세계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각도시서울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. 전문 아트디렉터(맹지영)를 영입하는 등 사업 체계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.

서울예술가 누구나, 365일 어디서나, 나의 예술을 선보이는 <조각도시서울>

- 서울시는 올해부터 <서울조각상(Seoul Sculpture Prize)>을 제정하여 운영한다.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고, 우수 작가의 작품을 서울 주요 명소에 전시함으로써 조각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다. 내년부터는 <서울조각상>을 국제 공모전으로 확대하여 국제조각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.
 - <제1회 서울조각상>은 ‘경계 없이 낮설게’를 주제로 오는 4.17.(수)까지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. 공모 참여작 가운데 10인을 1차 입선 작가로 선정하고, 시민들의 평가와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오는 11월, 10인 중 최종 대상 작가 1인을 선정한다.
 - 입선으로 선정된 10개 작품은 오는 9월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개최되는 <서울조각페스티벌>에 전시되고,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노을조각공원으로 이동 설치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더 오랜 기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※ 공모 관련 상세 내용 [서울시 누리집(고시·공고)] 확인

- 제1회 서울조각상 주제인 ‘경계없이 낯설게(The Strange Encounter)’에 대해서 맹지영 예술 감독은 “조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틀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매체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 한계를 넘나들 수 있는 작품이라면 그 상상력을 지지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- 이번 〈서울조각상〉은 조각상 수상과 연계된 송현공원 전시를 통해 현대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조각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여 평소 어렵게 느껴왔던 ‘조각예술’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서울시민 누구나, 365일 어디서나, 조각을 일상처럼 누리는 <조각도시서울>

- 〈조각도시서울〉의 대표 행사로 오는 9.2.(월)~9.8.(일)까지 7일 간 〈2024 서울조각페스티벌〉을 개최한다. 열린송현녹지광장, 월드컵공원, 한강공원 등에서 서울조각상 입선 작품 등 수준 높은 조각 전시를 선보인다.
- 한편, 〈서울조각페스티벌〉은 올해로 세 번째 해를 맞이한 〈키아프-프리즈 서울〉 아트페어와 연계한 〈2024 서울 아트위크(9.2.~9.8)〉와 함께 운영한다. 서울을 찾은 전 세계 미술관계자와 미술 애호가들이 서울의 시각예술이 지닌 매력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 편의를 도모하고,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·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목표다.
- 조각과 연계한 다양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(아티스트 토크, 어린이 조각놀이터 등)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조각 전시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.
- 또한 오는 7월부터 〈한 평(3.3m²)조각미술관 프로젝트〉를 시작한다.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어온 도심의 자투리 공간에 조각작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 여러 공간에서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젝트다.

- 올해는 ▲세종문화회관(2층 라운지) ▲서울도시건축전시관(서울마루) ▲시청사 앞 정원 ▲광화문광장(7번 출구) ▲노들섬 등 총 5곳에서 전시를 선보인다. 각 공간에 어울리는 예술성·심미성을 모두 갖춘 조각들로 엄선해서 전시될 예정이다.
- 고전 건축 일색인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한켠에 설치된 낯선 현대미술 작품이 뜻밖의 감동을 주는 것처럼, 이제 서울의 도심 한 가운데서도 뜻밖의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된다.

□ 한편, 역량있는 전시기획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참여주체에게 열린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-민간이 협력하여 <민간협력전시>를 추진한다. 서울의 넓은 장소를 배경으로 전시기획자·작가의 실험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.

- <2024 조각도시서울 민간협력전시> 공모를 통해 5월부터 ▲열린송현녹지광장 ▲뚝섬한강공원에서 전시를 진행한다. 올해 의미있는 첫 시도를 시작으로 향후 더욱 참신하고 다채로운 협력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.

서울 주요 거점공원이 조각랜드마크로 변신하는 <조각도시서울>

- 시민-예술가를 위해 펼치는 ‘조각예술’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 주요 거점 공원을 조각공원으로 랜드마크화 하는 중·장기 전략을 추진한다. ▲열린송현녹지광장 ▲월드컵공원 ▲노들섬 ▲북서울꿈의숲 등 5개 조각예술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동시에 한강유역에서는 야외조각 순환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인다.
- (열린송현녹지광장) 올해 첫 선을 보이는 <서울조각페스티벌 및 서울조각상 공모 전시>를 시작으로 향후 서울공예박물관·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립 미술관과 삼청동에 위치한 다수의 갤러리들과 연계한 ‘시각예술 랜드마크’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. 향후 건립될 이진희 기증관(가칭)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모은다.

- (월드컵공원) 노을조각공원을 서울의 대표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. <서울조각상> 대상 수상작을 노을공원으로 옮겨 전시함으로써 훌륭한 조각 작품으로 노을공원을 지속적으로 채워갈 예정이다. 또한 ‘서울트윈아이(가칭)’ 구축과 월드컵공원 일대 재구조화와 맞물려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조각랜드마크로 도약시킬 계획이다.
 - (노들섬) ‘글로벌예술섬’으로의 변신을 준비중인 노들섬은 대학생, 영아티스트 등 차세대 작가 발굴의 거점지로 콘셉트를 강화한다. 한강변의 노을과 다양한 예술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‘MZ들의 성지’로서 전통 조각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예술을 시도하는 실험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.
 - (북서울꿈의숲) 북서울꿈의숲은 가족과 어린이를 주 타깃층으로 하여 북부권역을 대표하는 조각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. 북서울꿈의숲 내에 위치한 <상상톡 특미술관> 및 인근의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하여 공공전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. 특히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야외조각 전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여 드넓은 잔디에서 뛰놀며 조각을 접할 수 있는 예술친화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.
 - 이 외에도 한평조각미술관은 서울 내 숨은 공간을 발굴하여 서울 전역 주요 공간에 조각 작품이 자리하도록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.
-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“<조각도시서울> 프로젝트는 서울 전역을 시민과 예술가가 ‘조각’이라는 매개로 예술적 영감을 자유롭게 나누는 장이자, 조각예술랜드마크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의미 있는 정책적 시도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서울이 세계적인 조각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붙임 1. 제1회 서울조각상 공모전 포스터 1부.
 2. 2023 아트서울 특별전 참고사진. 1부. 끝.

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

SEOUL
MY SOUL

Seoul
Sculpture
Prize


제1회 서울조각상 공모

공모 주제 | The Strange Encounter
경계 없이 낮설게

'조각'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틀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매체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 한계를 넘나들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상상을 지지합니다.

2024.4.11.
4.17.

공모 작품	공모 작가 1명당 야외 조각 작품 1점 ① 야외 전시를 위한 작품으로 내구성을 갖춘 재료로 제작 되어야 하며 본질과 파손 위험 또는 안전성 문제가 없는 작품이어야 함 ② 야외 공원의 상시 개방성 및 안전상의 이유로 시각적 감상 위주 작품 ※ 인터랙티브·관객참여형 작품 공모 제한, 전시장 내 조명 및 관람용인 안내 구조물 설치 예정 ③ 3x3x5(m) 이내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의 작품 ※ 작품 규격은 전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한 예시이며, 자유롭게 구성하되 일선화 선정 이후 예술 감독과 협의하여 최종 조정 가능 ④ 공고일 현재, 국내·외 미발표된 작품으로 반드시 신작으로만 공모 가능 (구작 또는 기제작된 작품 공모 불가)
공모 자격	조각(조형예술)분야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 또는 국내 활동 중인 해외 작가(개인 또는 팀) ※ 최근 3년 이내 조각 관련 개인전 또는 단체전 1회 이상 개최 경력(출업전 및 학위청구전 제외). ※ 팀 구성은 최소 2명 이상이며 팀원 모두 위의 두 자격을 충족해야 함
선정작가 특징	1차 입선 작가 10인을 선정하여 본선 전시 진행, 10인 중 최종 대상 작가 1인 시상 ① 입선자 : 10명 - 작품제작지원금 25,000,000원(아티스트피 포함) - 2024 서울조각페스티벌 '서울조각상' 전시, 상패(서울특별시장) ② 서울조각상 대상 : 1명 - 서울조각관원 이동 설치(5년 내외), 트로피(서울특별시장) ※ 작품대여조건 등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
접수 방법	서울조각상 운영사무국 E-mail 접수 (artseoul2024@gmail.com) ※ 제출 서류는 A4·라미네이션된 PDF파일로 제출하며, 파일명은 2024서울조각상 지원자(팀)명 으로 제출 (제출 서류 최대 용량 100MB 이하)
관련 문의	서울조각상 운영사무국 ① 사무국 : 070-8806-5508 ② 서울시 : 02-2133-4231 또는 4234 ※ 문의가능시간 : 10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주최·주관	서울특별시

전시명	전시 현장 사진		
<p><땅을 딛고> 송현공원 특별전</p>			
<p><조각의 시간 : 올림> 세종문화회관 특별전</p>			
<p><조각의 시간 : 흐름> 노들섬 특별전</p>	